조선후기, 죽은 딸과 누이의 '총명함'을 다룬 사대부의 제문

: 칭송, 탄식, 그리고 경계 설정하기

정지영*

차례

1. 들어가며
2. 17~18세기 사대부들이 쓴 딸/누이의 총명함
3. 과시와 정당화
4. 경계를 설정하고 조절하기
5. 나가며

〈국문초록〉

조선후기 사대부 남성들이 쓴 죽은 딸과 누이에 대한 글 속에는 유교적 부녀 규범을 기준으로 그 삶을 평가하는 내용뿐 아니라, 그들의 특출한 딸/누이에 대한 애착이 뒤섞여 있다. 죽은 딸과 어린 누이에 대한 글은 대체로 유교적 덕목에 따른 전형적 문구들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남자로 태어나지 못하여 아쉽다"는 탄식과 함께 그녀들이 그 자체로 얼마나 재능 있고 영특했는지, 세상에 대한 바른 식견을 갖고 있었는지, '여자'라는 조건이 얼마나 속박이었는지를 드러내곤 한다. 그 글에서 '총명함'이 강조된 여성들은 대체로 당대 최고의 가문, 또는 가난하지만 이름난 집안의 딸이었다. 그녀들의 총명함은 우월한 가문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거리였지만, 동시에 부녀의 덕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될 필요가 있었다. 이렇듯 집안의 비범한 딸/누이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그녀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부교수

들의 ‘총명함’이 발휘될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하는 일이었지만, 그녀들의 특출함은 그 경계를 넘어 돌출하곤 했다. 사대부들은 스스로 그 한계를 넘나들며 자신에게 소중한 그녀들의 특출함을 드러내었다. 죽은 딸과 누이에 대한 사대부의 글 속에는 그녀들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총명했는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부녀의 덕목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수습해야 했던 긴장과 분투가 담겨 있다.

핵심어 : 여성, 독서, 규범, 담론, 틈새

1. 들어가며

“너는 특출 나게 총명하여 한번 눈과 귀를 지나간 것은 잊지 않았다.”[1] “누이는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9세 때, 아이들이 공부하는 곁에서 들으면 곧 암송할 수 있었다.”[2] 이는 조선의 사대부들이 죽은 딸과 누이에 대해 쓴 글의 한 대목이다. 죽은 그녀들이 총명했다는 것은 딸과 누이에 대한 서술에서 흔히 등장하고 강조되는 내용이다. 이 글은 17·18세기 사대부 남성들이 죽은 딸과 누이에 대해 쓴 제문에서 딸/누이의 ‘총명함’을 서술한 대목에 조명을 비추어본 것이다. 이에 그들이 딸과 누이의 ‘총명함’을 어떻게 서술하고 다루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죽은 여성에 대한 글은 대체로 글쓴이의 할머니, 어머니, 아내에 대한 것이 많다. 이러한 행적을 기록할 때 저자는 대체로 죽은 그녀들이 ‘부덕’을 실행한 모범적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1) 김수항, 「딸에게 주는 제문」, 김경미 외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 319쪽. 이 연구에서 인용한 자료들은 김경미 외(역),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4』, 2006, 보고사(이하 『17세기 자료집』으로 표기); 김경미 · 황수연 외(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 2010, 보고사(이하 『18세기 자료집』으로 표기)을 활용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목록은 글 뒤에 싣는다.

2) 윤봉구, 「누이동생 숙부인 윤씨의 묘지」, 『18세기 자료집 2』, 123쪽.

적게 남아 있는 아버지가 딸에게 쓴 글 또는 오빠가 여동생에게 쓴 글은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흥미롭다. 사대부 남성들의 입장에서 여동생이나 딸은 글쓴이에게는 자신과 함께 자라거나 자신이 돌봐 준 각별한 애정과 우애의 대상이다. 그들이 몇 살에 죽었든 상관없이, 글쓴이에게는 아직 어린 그녀가 죽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딸과 누이에 대한 제문 등에는 그녀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과 함께 그녀들을 다른 부녀들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기록하고 싶은 아버지와 오빠의 마음이 담겨 있다.

앞선 연구에서 조선시대 죽은 여성에 대한 글은 주로 어머니 또는 아내에 대해 아들 또는 남편이 쓴 경우를 중심으로 다루었다.[3]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계녀서>의 부덕에 대한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항목별 언급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파악하는 등 죽은 여성에 대한 글에 대해 풍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4] 또 행장을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해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5]

---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이은영, 「조선 초기 제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1-240쪽; 황수연, 「17세기 '祭亡室文'과 '祭亡女文' 연구」, 『韓國漢文學硏究』 30호, 한국한문학회, 2002, 37-73쪽; 박무영,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연구』 32집, 한국한문학회, 2003, 317-352쪽; 강혜선, 「한국문학과 일상적 삶 ; 조선후기 여성 대상 제문(祭文)과 묘지명(墓誌銘)에 나타난 일상성 연구」, 『국문학연구』 13호, 국문학회, 2005, 7-36쪽; 황수연, 「조선후기 제문 연구－여성 대상 제문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25호, 2006, 403-428쪽; 류준경, 「여성 망자(亡者)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기록, 그 차이와 층위 - 의유당의 < 숙부인이씨행록 >과 < 숙부인이씨유사 > 및 박윤원의 < 숙부인연안이씨애사 >를 검토함-」, 『국문학연구』 33호, 국문학회, 2016, 122-158쪽. 최근에 19세기~20세기 초의 제망녀문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는데, 아버지가 쓴 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표현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서정성의 심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김현미, 「19세기 • 20세기 초 문인들의 제망녀문 속에 드러난 애도」, 『여성문학연구』 3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101-129쪽)

4) 이지양, 「조선조 후기 사대부가 기록한 아내의 일생: 행장 26편으로 본 내조(內助)의 힘」, 『인간 • 환경 • 미래』 7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1, 31-57쪽.

5) 황윤정, 「가문 질서의 재생산으로서 여성 행장의 글쓰기 방식 연구 -김만중의 <선비정경부인행장(先妣貞敬夫人行狀)>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45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547-580쪽.

죽은 어머니, 아내에 대한 글이 대체로 칭송과 미화를 담은 규범적 장치로 읽힌 것과 달리, 딸과 누이에 대한 행장, 제문 등은 대체로 아버지의 애통함을 표현한 글[6], 또는 규범적 부덕의 전형성에서 벗어난 주체적 여성의 모습을 담은 사례로 제시되곤 했다. 예를 들어, 김창협이 쓴 여성에 대한 애제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 김창협이 딸 김운의 독서에 대해 서술한 대목에 대해 소위 남성적 덕목으로 여성을 칭송하며 기록한 것으로 해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독서와 암기, 문장 수련, 역사와 정치의 흐름 속에서 자기가치와 자기 위치의 정립, 그리고 실현이 남성이 갖추어야 할 덕복이라는 것이다. 이에 "여성적 덕목에 충실한 칭송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천편일률적 모습이라 교감이 불가능한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남성적 덕목의 칭송이 출입하는 지점에서는 부분적이나마 그 여성의 개성이 혹은 그 여성이 실재하였던 인간이었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점이다"라고 하여, 책을 읽는 등 총명한 딸에 대한 서술을 여성의 개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7]

한편, 강성숙은 서당 이덕수가 서술한 어머니, 아내, 딸에 대한 글을 통해, 남성사대부의 여성 인식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그러한 글이 지배 윤리, 도덕적 규범을 문학적으로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서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딸이 똑똑했다는 점, '총명한 딸아이'에 대한 서술에 주목하였는데, 그에 대한 서술은 일반적인 제문이나 행장에서 보이는 이상적 여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 여성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8]

요컨대 조선 사대부가 쓴 죽은 딸과 누이의 총명함에 대한 글은 규범

---

6) 황수연은 제망녀문에 대해 "딸을 잃은 아버지의 애통함을 곡진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대상을 칭송하고 미화하는 내용은 다른 제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황수연(2006), 앞의 논문, 416쪽)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7) 고연희, 「17세기 남성의 여성재현 : 김창협의 여성 애제문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한국문화』 32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3, 272-277쪽

8) 강성숙, 「기억을 통해 드러나는 18세기 사대부의 여성상 -서당(西堂) 이덕수(李德壽)의 어머니, 아내, 딸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38호, 겨레어문학회, 2007, 81-84쪽

을 벗어난 서술, 서술 대상의 개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총명함에 대한 서술은 전형적 규범을 벗어난 딸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한 아버지와 오빠의 마음을 담은 것으로 논의되었다.

결국 죽은 여성에 대한 사대부의 글은 남성과 여성, 규범과 일탈, 이념과 현실, 유교와 비유교, 이성과 감성 등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해석되었다.[9] 때로는 글을 쓴 남성은 '규범'의 영역에, 글의 대상인 여성은 규범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과 일상'의 영역에 할당되었다. 또는 어머니와 아내는 부녀의 덕목과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딸과 누이는 규범을 벗어난 자유로운 개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일상은 규범과 규범을 벗어난 움직임이 뒤섞인 장이며 글을 쓴 사대부나 글의 대상이 된 여성들 모두가 규범과 일상 그 사이에서 유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할 때, 딸과 누이의 총명함에 대해 쓴 사대부의 글을 그녀들의 개성을 드러낸 것, 규범 밖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보는 것은 단순한 해석이다. 물론 부녀자의 총명함은 조선후기에 설정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전형적 여성 규범의 틀에서 벗어난 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녀들의 총명함에 대한 서술은 단순히 규범 밖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기보다는, 집안의 총명한 그녀들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부녀자의 규범이 허용하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 다루고자 한 사대부들의 기획을 보여준다. 딸과 누이의 총명함을 말하는 사대부들의 글 속에는 규범적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에게 각별한 딸과 누이가 그 경계를 넘어서 특출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함께 담겨 있다.

제문은 죽은 인물이 주인공이지만, 사실상 그 제문을 쓴 사대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집결체이다. 이 글은 특별히 총명했던 딸과 누이에 대한

9) 이러한 이항대립적 분석 틀은 조선시대 여성이 삶이나 지위를 평가하는 연구의 두 가지 갈래와 관련되어 있다. 조선시대 여성은 유교적 가부장제의 억압 속에 살았다거나, 유교적 원리에 따라 존중받거나 보호를 받았다고 하는 두 가지 입장 속에서 논의되었다.(이에 대해서는 정지영, 『질서의 구축과 균열-조선후기 호적과 여성들』,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44-54쪽 참조)

사대부들의 언술의 층위를 들여다봄으로써, 비범한 그녀들을 규범 안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담론의 구성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기획에도 불구하고, 사대부 자신이 특별한 애착의 대상인 그녀들을 규범의 경계 밖으로 돌출시키고 있었음을 읽어볼 것이다.

2. 17~18세기 사대부들이 쓴 딸/누이의 총명함

2.1 딸과 누이의 죽음에 대한 글

조선의 사대부들은 집안의 여성이 사망한 뒤에 그들의 행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글을 남겼다.[10] 조선시대 죽은 자를 기리는 글은 한 인물의 정보, 일대기를 포함한 기록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형식은 행장, 제문, 묘지명 등으로 다양한데,[11] 딸과 누이에 대한 글은 대부분 제문이다. 그 속에는 죽은 여성의 가계, 성품, 혼인, 부부 관계, 자녀 양육, 부모 및 시부모에 대한 태도, 가사, 노동과 치산, 지식과 교양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죽은 자에 대한 칭송과 애탄이 담겨 있다.

17세기와 18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12]에 들어 있는 글 가운데 죽은 딸과 누이를 대상으로 한 글을 세어보면 다음과 같다.

---

10) 『한국문집총간』(전체 350권)을 대상으로 할 때 망자를 추모하는 행장, 제문, 묘지명 등에서 사대부들에 의한 여성 대상 산문이 현격히 증가하는 것은 17세기(이경하, 「形管의 전통, 그 일상의 정치」, 『국문학연구』 15호, 2007, 86쪽)라고 한다.

11) 행장은 고인의 기릴만한 행실과 업적을 기록하여 열전에 넣게 하거나, 조정에서 시호를 논하게 하거나, 묘지명이나 비문 등을 작성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글이다(황윤정, 앞의 논문, 548-549쪽). 행장이나 묘지명이 기록과 전달을 위주로 한다면, 제문은 죽음을 기념하는 날에 낭독되는 것으로 비통한 감정이 담긴 글이라고 할 수 있다(황수연, 앞의 논문, 2006, 405쪽).

12) 각주 1의 서지 참조.

시기\구분	딸 /서녀	누이 (손위/손아래)	합계
17세기	24 / 1	28 (9/19)	53개
18세기	43 /1	58 (28/30)	102개
합계	67/2	86	155개

[표 1] 17~18세기 죽은 딸과 누이에 대한 글

17~18세기에 죽은 딸(서녀 포함)을 위해 아버지가 쓴 글은 모두 69편이다. 그리고 누이에 대해 남자형제가 쓴 것은 86편이다. 17세기의 작품을 남긴 저자는 23명이고[13], 18세기의 저자는 59명으로 17~18세기에 딸이나 누이에 대해 글을 남긴 저자는 모두 82명이다.[14] 17세기에 비하여 18세기에 작품 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딸이나 누이에 대한 글과 비교하기 위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 대해 쓴 글을 찾아보면, 17세기에 9편, 18세기에 31편으로 모두 40편이 있다. 딸이나 누이에 대한 글에 비해 며느리에 대한 글은 18세기에 많이 증가하였다. 딸과 누이가 대략 2배 정도로 늘었다면, 며느리는 3.5배가 늘었다. 어쩌면 친가의 아버지가 딸에 대해 쓰는 일보다 시가의 시아버지가 며느리에 대해 쓰는 것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일 수도 있다.[15]

한편, 조선시대 죽은 딸 또는 누이에 대한 글은 대체로 '제문'의 형태로 남았다.[16] 제문의 첫머리는 "을묘년 11월 을유삭 모일에 막내 오빠 수항

13) 17세기 자료집 안에 실린 전체 글의 작가는 모두 56명이고 작품은 365편이다. 작품 가운데는 죽은 여성에 대한 글이 아닌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어머니, 아내, 딸, 며느리 및 다른 집안의 여성이 죽은 뒤에 쓴 글들이다. 대략적으로 전체 365편 가운데 딸에 대한 글은 7%, 누이에 대한 글은 8%, 며느리는 2%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4) 한 명의 저자가 딸, 누이 등에 대해 여러 편의 글을 남긴 경우가 많으므로 작품 수와 저자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15) 이러한 현상은 18세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부계적 질서가 강화되고, 딸이 아닌 며느리의 위치가 더 강조된 경향 속에 이해할 수 있다. 과부가 된 뒤의 거주 관계를 호적대장을 통해 분석한 연구에서도 18세기 이후 시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정지영, 앞의 책, 2015, 309쪽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멀리서 제철 음실을 갖추고 아들 창을 시켜 신이 숙인 김씨의 영(靈)에 고하게 하노라." 등으로 시작한다.[17] 이어 망자의 생애가 간략하게 서술되거나 망자와 함께했던 추억, 인상적인 일, 죽게 되는 과정과 임종의 순간, 죽은 후의 상황과 홀로 남은 자의 슬픔 등이 담겨 있다.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보면 대체로 죽은 여자의 출신, 생년월일, 어린 시절의 모범적 자질, 혼인, 학문적 재능과 능력, 여공(女工), 부덕(婦德)과 관련한 칭송, 검소함과 치산 능력, 친족과 화목하고 노비를 잘 다스림, 칭찬할 만한 일화,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여 특출한 점, 저술 경위 등에 대한 서술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딸과 누이에 대한 글에서는 대체로 그녀들의 재능과 탁월한 식견이 강조되고, 교양과 지식, 외모와 성품을 아까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2.2 '총명함'을 강조한 글

사대부가 남긴 딸과 누이에 대한 제문 가운데 그녀들의 총명함에 대해 각별히 서술하고 강조한 저자는 김수항, 김재찬, 김주신, 김진규, 김창협, 김창집, 송시열, 송준길, 신경, 오광도, 오도일, 윤봉구, 윤증, 이복원, 이재, 이하곤, 이헌경, 이현일, 정제두, 채제공, 홍세태 등이다. 이는 전체 저자 82명 가운데 21명 정도이다. 이들은 당대의 유명한 학자, 관료, 문인들이었다. 이러한 수치에서, 총명함에 대한 서술이 아주 예외적이지도 않지만, 또 그저 관행적으로 포함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죽은 딸과 누이에 대한 글에서 그녀들이 어린 시절에 글자를 배운 과정과 사연에 대한 서술이 포함된 경우는 17세기에 53개 글 가운데 10개

16) 글의 제목에는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의례를 위해 저술한 글인지 등이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김수항, 「딸의 묘를 이장하고 쓴 제문」, 『17세기 자료집 1』, 346-349쪽을 볼 수 있다. 딸, 누이, 며느리에 대한 글은 대체로 제문이 가장 많고, 묘지나 묘비명 등이 그 다음으로 많으며, 행장은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

17) 황수연(2006), 앞의 논문, 418쪽.

내외인데, 18세기에는 102개 가운데 16개 내외로 파악된다. 비율을 보면 18세기에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18세기에 며느리에 대한 글이 늘어난 점을 언급했는데, 딸과 누이의 총명함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강조하는 대목이 점차 줄어들고 대체로 '부덕'에 맞는 행실을 길게 서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흐름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글쓴이와 죽은 이가 처한 상황, 죽음에 이르게 된 사연이나 관계 등에 따라 그 서술 내용이나 칭송 및 애탄의 비중은 달라진다.

제문 등에서 딸이 총명하다는 것은 대체로 '경오(警悟)',[18] '총명(聰明)',[19] '명예(明睿)',[20] '총오(聰悟)',[21] '총예(聰睿)',[22] '총혜(聰慧)',[23] '총명영혜(聰明穎慧)',[24] '명오(明悟)'[25] 등의 표현을 써서 드러내었다. 이 말들은 총명하고 영특하고 명민하고 지혜롭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총명함은 '어린 시절부터'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며, 어린 시절에 글을 배우고 책을 읽는 일에서 얼마나 영특했는지를 통해 강조되었다.

---

18) "어려서 총명하였다(幼而警悟)"(송준길, 「딸의 무덤에 쓰는 글」, 『17세기 자료집 2』, 229-230쪽). 여기서 '경오'는 빨리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19) "그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났다(其聰明絶人)"(김창협, 「누이를 위한 애사」, 『17세기 자료집 3』, 362-366쪽; "총명함여 윤리를 잘 알았다(聰明鮮倫)"(송징은, 「큰누님께 올리는 제문」, 『18세기 자료집 1』, 19-20쪽)

20) "총명함이 남들보다 뛰어났다(明睿絶人)"(윤증, 「누이의 묘지」, 『17세기 자료집 4』, 144-147쪽).

21) "총명하고 효성스러우며 공손했다(聰悟孝恭)"(오도일, 「상씨에게 시집간 누이에게 올리는 제문」, 『17세기 자료집 4』, 236-24쪽).

22)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났다 聰睿絶人"(정제두, 「누이 정부인의 유사」, 『17세기 자료집 4』, 328-329쪽).

23) "특출하게 총명하였다(聰慧特異)"(김수항, 「딸에게 주는 제문」, 『17세기 자료집 1』, 319쪽)

24) "총명하고 지혜로웠다(聰明穎慧)"(윤봉구, 앞의 글, 122-132쪽).

25) "딸아이는 날 때부터 아주 총명했다(女生而甚慧), …보통 아이와 달리 명석했다(明悟異凡兒)"(이하곤, 「딸 봉혜 광지」, 『18세기 자료집 4』, 347-349쪽)

3. 과시와 정당화

3.1 과시: 남자보다 나은 그녀들

집안의 딸/누이에 대한 글에서 아버지/오빠들은 그녀들이 얼마나 특별하게 총명했는지를 과시적으로 드러냈다. 김창협의 특출한 딸 김운은 글을 배우고 읽는 일에서도 뛰어났다. 그녀가 글을 배우는 과정은 아버지가 쓴 묘지명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 처음에 동생 숭겸(崇謙)[26]과 함께 십수 장 글을 배우더니 문리를 곧 통달하여 혼자서 『주자강목(朱子綱目)』을 막힘없이 읽어냈다. 매일 문을 닫고 책을 펼쳐들고 꼼짝도 않은 채 침잠해 익히니, 밥 먹고 자는 것조차 돌보지 않을 정도였다. 거사가 이를 어여쁘고 기특하게 여겨 막지 않고서, "이 아이의 성정이 고요하고 순박하니 비록 글을 안다 해도 해가 없을 것이야." 하였다. 그리하여 대략 『논어(論語)』와 『상서(尙書)』를 가르쳤는데, 또한 끝까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딸의 이해가 명철하여 육경(六經)의 경전도 모두 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27]

김창협은 딸의 총명함을 촘촘하게 묘사하고 얼마나 명철했는지 강조한다. 과연 김운은 단순히 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섰던 것 같다. 그녀는 "남자로 태어난다면 깊은 산 속에 집을 짓고 수백 수천 권의 책을 쌓아두고 그 가운데서 조용히 늙어 가고 싶다"[28]고 기록되어 있다.

김창협의 경우 딸뿐 아니라 그 누이에 대해 쓴 애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그녀의 명석함을 묘사하였다.

---

26) 김숭겸(金崇謙: 1682~1700). 김창협의 아들.
27) 김창협, 「오씨에게 시집간 딸의 묘지명」, 『17세기 자료집 3』, 318-319쪽.
28) 김창협, 「오씨에게 시집간 딸의 묘지명」, 『17세기 자료집 3』, 321쪽.

> 그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아무리 작은 일도 잊지 않았다. 여러 형제들이 이야기하다 혹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누이에게 물어보면 곧바로 기억하여 분별해 내었는데, 날짜와 시각까지 자세하게 말하곤 하였다. 여럿이서 시험 삼아 물어보면 열에 두셋을 놓치지 않았다."[29]

김창협의 누이동생 안동 김씨는 김수항의 딸이다. 김수항도 또한 그녀에 대해 긴 글을 남겼는데, "특출하게 총명하여 한 번 눈과 귀를 거친 것은 잊지 않았다"고 서술하였다.[30] 이렇듯 특출한 딸들의 총명함은 경쟁적으로 부각되었다. 윤증은 "어려서부터 명석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는데, 겨우 배냇니를 갈 나이가 되자 내외 선조들의 이름을 능히 외웠다."[31] 라며 누이의 특출함을 과시하였다.

김창집은 <딸의 행장>에서 단순히 그녀가 잘 배우고 익혔음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그녀가 글을 가르치는 일에서도 탁월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드러내었다.

> 6살에 언문을 깨쳤는데 글씨가 단정하고 8살에는 이미 어머니를 대신하여 들고 나는 서찰들을 대신 살피니 어머니께서 몹시 칭찬하셨다. 내 어머니께서 언문을 깨친 여종들을 가까이 두고자 하시니 딸은 바로 그들을 가르쳤는데 깨우쳐 가르치는 데 규모가 있는데다 전력으로 부지런히 하며 그치지 않으니 며칠 만에 글을 깨쳤다.[32]

또한 오광운이 쓴 "어려서 죽은 누이동생의 행장"[33]에서도 누이동생이

---

29) 김창협, 「누이를 위한 애사」, 『17세기 자료집 3』, 362-363쪽.
30) 김수항, 「딸의 행적」, 『17세기 자료집 1』, 308쪽.
31) 윤증, 앞의 글, 144쪽.
32) 김창집, 「딸의 행장」, 『18세기 자료집 7』, 158쪽.
33) 오광운, 「어려서 죽은 누이동생의 행장」, 『18세기 자료집 2』, 248-249쪽.

‘예’와 ‘식견’ 모두 뛰어났으며 왕성하게 책을 읽어 막힘이 없었다는 것, 그 재주와 덕이 자신보다 뛰어났다고 절절하게 기술한다. 그리고 남매 사이에 지적인 교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추억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출한 딸과 누이에 대한 칭송은 종종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가문을 빛냈을 것이다” 또는 “남자가 아니라서 아쉽다”라는 후렴구로 마무리된다. 이는 복잡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이다. 집안의 딸들의 총명함은 그 가문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였다. 비록 남자가 아니라서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지만 딸은 은근히 가문을 빛내는 존재였다. 그들이 최고의 가문의 특별한 엘리트 여성이기에 그녀들의 탁월함은 부각될 수 있었다. 남자가 아니라서 아쉽다는 말 속에서 그녀의 총명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태도와 여자의 한계를 명시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읽을 수 있다. 또 딸의 총명함이 발휘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담고 있는 듯하다. 그 표현은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한계만 아니었다면 그녀들이 크게 이름을 날렸을 것임을 안타까워하는 두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다.

3.2 정당화: 교화와 선행

여자의 배움은 유교적 교화의 한 방편으로 정당화되었다. 송시열은 서녀를 위한 제문을 쓰기도 했는데, 그녀가 스스로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문리가 통하여 속뜻까지 훤히 알았다고 자랑하였다. 곧, “스스로 [공부]하기를 그치지 않아서 문리를 이미 깨우치더니 『소학』을 즐겨 읽으며 그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동을 좋아하더구나.”라며 그녀가 『소학』을 즐겨 읽었다고 강조했다. 또 “나이가 좀 들어서는 그 말과 행동을 살펴보니 『소학』에서 어긋난 것이 드물었다”며, 그녀의 행동과 결단을 칭찬할 때는 “『소학』에서 배워서 그렇게 된 것이리라.”[34]라고 서술하였다. 송시열이 쓴 서

34) 송시열, 「서녀 민씨 부인에게 주는 제문」, 『17세기 자료집 1』, 79-81쪽.

녀 민씨의 제문을 읽다 보면, 주인공이 죽은 '서녀'가 아니라 『소학』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서녀 민씨에 대한 칭찬 뒤에는 『소학』을 읽어서 그렇다는 말이 따라붙곤 했다. 이렇게 서술함으로써, 송시열은 글을 읽는 딸을 소학을 통해 정당화하고, 딸의 사례를 통해 소학의 규범을 강화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을 읽은 딸에 대한 서술은 읽어야 하는 글과 알아야 할 지식의 범위를 제한하는 논의로 이어졌다. 오광운이 11세에 죽은 누이를 기리며, "누이는 어렸을 때부터 왕성하게 책을 읽어 막힘이 없었지만, 예에 어긋나는 대목을 만나면 곧 책을 덮고 읽지 않았다. 늘 나를 따라 옛 사전(史傳)을 듣기 좋아했는데, 충신과 효자, 열녀의 행실에 관한 대목에 이르면 그들을 위해 탄식하며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곤 했다."[35] 라고 쓴 것에서 '예'에 벗어나는 것을 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다. 김창협이 그 누이가 시서를 배우는 것을 사양했다고 하면서도 그녀가 "고인들의 가언과 선행에 관해 이야기하면 문득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었다."[36]고 쓴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들은 오직 충신, 효자, 열녀의 선행에 대한 내용에 제한된 것으로 이야기했다.

이러한 '교훈'에 대한 강조는 결국은 그녀들의 총명한 식견을 키우고 가르치고 싶었던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의로 활용되었다. 여자가 글을 배우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지식을 습득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정제두는 누이에 대해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났다고 하면서 그녀가 "『열녀전(列女傳)』, 『여계(女誡)』 등 여러 교훈서들을 공부하고, 역사를 두루 섭렵하여 고금의 일에 통달하고 시사(時事)를 잘 살펴 분별하였다"[37]고 서술하여, 그 총명함을 교훈서와 역사, 시사를 살펴 분별하는 일에 썼음을 강조하였다. 풍속 교화를 위한 것임을 내세워 글을 읽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었

35) 오광운, 앞의 글, 248-249쪽.
36) 김창협, 「누이를 위한 애사」, 『17세기 자료집 3』, 362-363쪽.
37) 정제두, 앞의 글, 328-329쪽.

고, 그 딸을 자랑하려는 아버지들은 총명한 딸들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었다.

4. 경계를 설정하고 조절하기

4.1 배우지 못하게 하면서 가르치기: 책임 회피와 칭송

총명한 딸이 문장을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자랑거리였지만, 여자에게 허용된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김창협은 김운의 총명함에 대해서 쓰면서, "이 아이의 성정이 고요하고 순박하니 비록 글을 안다 해도 해가 없을 것이야"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그것을 '막지 않았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끝까지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말들을 끼워 넣었다. 이는 당시에 여자가 글을 알면 '해'가 있을 것이므로, 막아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글은 여자가 할 일이 아니기에 가르치지 않았다"[38]는 표현은 그녀들의 출중함과 짝을 이루어 등장하곤 한다. 이의현 또한 글을 배우지 않은 딸의 지식을 자랑한다. "비록 문사를 익히지 않았지만 고금의 중대한 시비와 치란에 대해서는 모두 요점을 알고 있고 집안의 족보와 계파 또한 알고 있었"[39]다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녀들이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탁월하게 글을 익혔는지를 부각시키는 말이면서, 동시에 저자들이 부녀가 글을 배우는 것을 마음껏 자랑할 수는 없는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부녀가 글을 배우는 것을 경계하면서 단순히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지 못하게 했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홍세태는 그

38) 송준길, 앞의 글, 229쪽.
39) 이의현, 「둘째딸 김씨의 아내 묘지」, 『18세기 자료집 7』, 299-302쪽.

딸 이씨부인에 대해 "예로부터 문장을 할 줄 알던 부인들은 대부분 운명이 기박하였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게 했다."[40]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영특한 딸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헌경은 딸에 대한 제문에서 그녀의 불행을 걱정하여, 글을 가르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은 <소학>과 <소미통감>을 가르쳤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가르쳐 일깨워 주지 않아도 문자를 제법 알았으니 네게 특별한 재주가 있음을 내가 알았지만 항상 걱정하며 "옛날부터 여자로서 문사를 잘 하는 사람치고 박명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하고 결국은 글을 가르치지 않았지. 좀 더 자라서는 <소학> 몇 권과 <소미통감(少微通鑑)> 60판만 가르쳤을 뿐인데 몇 차례 읽고 나더니 바로 모두 외웠고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식견과 뜻이 모두 고상하여 아녀자들의 치우치고 답답한 도량을 벗어나니 선비와 군자의 행실에 은연 중에 부합하는 것이 많았다."[41]

이헌경의 딸은 <소학>과 <소미통감>을 몇 번 읽고는 통째로 외우는 능력자였다. 총명한 딸과 누이를 둔 아버지와 오라비들의 글에는 그녀들을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 그녀들이 유난히 특출한 존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들은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느새 가르치고 있었다.

송준길의 딸에 대한 서술에서도 그러한 대목을 읽을 수 있다.

> 은진(恩津) 송준길(宋浚吉)에게 딸이 있으니 이름이 정일(靜一)이다. 어려서 총명하여 3,4세에 말을 하니 마치 어른 같았다. 하루는 그 아비가 천자

40) 홍세태, 「딸 이씨 부인에게 주는 제문」, 『18세기 자료집 1』, 166-167쪽.
41) 이헌경, 「이씨에게 시집간 딸 제문」, 『18세기 자료집 8』, 414-415쪽.

> 문을 펴고 시험 삼아 묻기를, "모 자는 무슨 뜻이며 모 자는 무엇이라 이르냐?"하니 바로 응하여 입으로 대답하는데 의심스러워하는 것이 없었다. 그 아비는 기특하게 여겼으나 글은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기에 다시 가르쳐 주지 않았다. 다만 귀를 끌어 자애롭게 가르쳤을 따름이다.42)

송준길은 자신의 딸이 총명했지만 글은 여자가 할 일이 아니라서 다시 가르치지는 않았다고 썼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귀를 끌어 가르쳤다"는 말이 이어진다. 사대부들은 그녀들의 총명함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그녀들이 본격적으로 글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토를 달았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한편에서는 은근히 옆에서 배우도록 조장했다.

윤증 또한 그 누이에 대해 "조금 더 커서는 형제들이 글 배우는 것을 보고 옆에서 있으면서 조용히 알게 되었다. 이로부터 여러 책들을 펼쳐 보아서 통하여 깨닫지 않음이 없었다"43)고 서술하였다. 또 김재찬이 그 누이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보면, "총명하고 기억을 잘하였다. 글이나 역사, 경전, 여러 전적들의 내용을 어른들을 따라서 옆으로 들으며 귀에 한 번 지나친 것은 잠자코 마음속에서 이해하고 잊어버리지 않았다"44)고 되어 있다. 이렇듯 그들의 딸과 누이들은 한결음 비껴서 "옆으로 들으며", 배우지 않겠다고 사양한 뒤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45)는 방식으로 글을 익혔다고 서술하곤 한다.

딸이 글을 읽고 여러 서책에 통달했음을 자랑해야 하면서도, 글을 배우는 것을 마음껏 드러낼 수 없는 상황 사이에서, 집안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녀들이 옆에서 배운 것이라는 살짝 비껴서는 방식의 서술이 이루어졌다. 이는 한편에서는 "딸조차도 훌륭한" 가문의 우월함을

---

42) 송준길, 앞의 글, 229쪽.
43) 윤증, 앞의 글, 144쪽.
44) 김재찬, 「누나의 묘지명」, 『18세기 자료집 3』, 617쪽.
45) 김창협, 「누이를 위한 애사」, 『17세기 자료집 3』, 362-363쪽.

드러내면서, 딸들이 드러내놓고 글을 하는 집안은 아니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전략이었다. 또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글을 배우고 통달한 그녀들의 특출함을 자랑하는 것이기도 했다.

조선의 고위층 사대부 남성들이 쓴 딸의 제문에는 정교하게 포장된 자기모순이 담겨 있다. 총명한 딸을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녀들의 특별한 총명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들이 만드는 과정에 있던 '규범'의 사례를 제시하는 일 사이에서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4.2 규범으로 수렴하기: 여공과 부덕

글을 배운 그녀들의 실력과 총명함은 "오직 순종하는 것으로써 바른 것으로 삼았으니 굳이 그러리라고 기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한 모범을 이루었다."[46]는 말을 강력하게 내세운 뒤에야 '총명하고 기억을 잘했음'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조절되었다. 김창흡의 표현, "아아! 부녀자에게는 네 가지 덕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순종함으로 모아진다."[47]라는 말은 조선후기에 강조하고자 한 부녀의 덕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48]

홍세태는 딸은 "다섯 살에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붓을 쥐고 글을 쓰며 춘첩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영특했다. 그러나 홍세태는 "예로부터 문장을 할 줄 알던 부인들은 대부분 운명이 기박하였기 때문에 그만두게 하고 배우지 않게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거스르는 기운이 없었다."며 "부모를 섬김에 효성스러웠고 남편을 따라 순종하였으며 비복을 거느림

46) 김재찬, 앞의 글, 617쪽.
47) 김창흡, 「둘째 며느리 박씨 부인에게 주는 제문」, 『18세기 자료집 1』, 116쪽.
48) 부녀자의 네 가지 덕은 『女戒』에 나오는 "부덕: 행하고 그만 두는 데 법도가 있는 것, 부언: 말을 가려서 하는 것, 부용: 의복을 깨끗이 하는 것, 부공: 길쌈에 전념하고 술과 음식을 정갈하게 하는 것"(박윤원, 「여자에게 주는 여덟 가지 경계」, 『18세기 자료집 6』, 248-251쪽)으로 거론되곤 했다.

에 매우 은의가 있었고 여공과 음식 장만하는 일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49]며 딸의 능력을 부녀가 갖추어야 할 덕을 실행하는 데에만 제한했음을 밝히고 있다.

김창협은 김운을 글과 책에 몰입한 딸로 묘사했지만, 그 묘지명에 "무리들 중에 있을 때는 공손하게 물러나 있으면서 한결같이 무능한 듯이 굴며 오직 삼가며 여공(女工)에 힘썼다. 오씨에게 시집간 지 7년 동안 오씨 집안사람들은 이 딸이 한번이라도 책을 읽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50]라며, 그 특출함을 감추고 여자가 해야 할 일에 힘썼을 뿐임을 강조한다. 책을 수천 권 쌓아 놓고 읽다가 늙어가고 싶다고 했던 김운은 돌연 시집간 뒤 7년 동안 한 번이라도 책을 읽는 것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다.

윤봉구의 누이동생 윤씨도 또한 "9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곁에서 한 번 들으면 곧 암송할 수 있었다. 돌아가신 부군께서 신기하게 여겨 시험삼아 역사책을 주었는데 어렵지 않게 외웠을 정도"로 영특했지만, "책 십여 권을 넘게 보더니, 누이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하여 즐겨 하지 않았다. 그 덕과 식견이 실로 어려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51]라며 자발적으로 삼간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김창협의 누이는 "형제들이 그 총명함을 사랑하여 시서를 가르쳐주려 하자 사양하며 즐겨하지 않았고 오로지 여공에만 힘을 썼다."[52]고 서술되었다. 채제공의 누이 또한 그 재주가 신통하여 어릴 때 당시 수십 구를 외우고, 시를 직접 짓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여자의 일이 아님을 알고 그 재주를 여공에 쓰니, 바느질과 길쌈은 한번 보면 훤히 다 알았다."고 하면서 그 솜씨가 뛰어나서 "친척들이 너에 대해 평가할 때는 모두 삼매경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고 서술한 것을 볼 수

49) 홍세태, 앞의 글, 166-167쪽.
50) 김창협, 「오씨에게 시집간 딸의 묘지명」, 『17세기 자료집 3』, 320-321쪽.
51) 윤봉구, 앞의 글, 123쪽.
52) 김창협, 「누이를 위한 애사」, 『17세기 자료집 3』, 362-363쪽.

있다.[53] 모두가 칭찬하느라 삼매경에 빠지는 것은 그녀의 바느질과 길쌈을 하는 솜씨와 신속함에 대한 것이었다. '여공'에 뛰어났다는 것은 그녀들의 특출한 능력에 대한 과시욕이 도달해야 할 종착지였다.

다음 정제두가 누이에 대해 쓴 글은 사대부 남성들이 글을 배운 여자에게 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나서 항상 『열녀전(列女傳)』, 『여계(女誡)』 등 여러 교훈서들을 공부하고, 역사를 두루 섭렵하여 고금의 일에 통달하고 시사(時事)를 잘 살펴 분별하였다. 실제로 특출나고 통달한 식견이 있었으나 안에 감추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보인 적이 없었다. 남편을 섬기고 시부모를 모실 때는 언제나 대의(大義)를 따르고 도를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 예법을 중히 여김은 비록 옛날의 현숙한 모범이 되는 부인들도 이에서 더하지 못할 것이다.[54]

글을 읽어서 예법에 통달하면서도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그 능력을 오직 예법을 따르고 현숙한 부인의 행실을 갖추는 데 쓰라는 것이었다. 이렇듯 글을 읽는 총명한 여자가 오직 '윤리'를 아는 데 그 능력을 제한하고, 말을 아끼고, 행동을 제한할 때 그녀는 '여자 선비'로 일컬어졌다. "아아! 슬픕니다. 우리 누나는 진실로 여자 선비(女史)였습니다. 총명하여 윤리를 잘 알고 편안히 책을 읽으면서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단정하고 공경하며 말을 적게 해 본보기가 되지 않는 것이 없었으나 행동은 규문에만 제한하셨습니다."[55] 책을 읽는 것은 허락되었다. 다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행동을 규문 밖까지 뻗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 능력이 발휘되는 한계였다.

유교적 덕목과 규범은 여성을 평가할 때 대체로 유용한 근거로 거론되

---

53) 채제공, 「이씨에게 시집간 여동생 제문」, 『18세기 자료집 5』, 17-18쪽.
54) 정제두, 앞의 글, 328-329쪽.
55) 송징은, 앞의 글, 19-20쪽.

곤 하지만, 그 죽은 여자가 자신의 딸이나 누이인 경우에 미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들은 감출 수 없는 총명함을 가진 그녀들이 그것을 내세우지 않은 것을 칭송하였다. 이를 통해 그녀들이 얼마나 특출하게 빛나는 존재인지 말하면서 동시에 얼마나 당대의 표준적 규범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그녀들의 능력이 여자에 대한 규범의 경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절되었음을 드러내었다. 총명한 딸들은 그 총명함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사대부들이 쓴 글 속에서, 남자보다 더 나은 그녀들의 존재는 한편에서는 집안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장치였지만, 또 한편에서는 후세의 여성들을 경계하는 효과적인 매개였다. 후세의 딸들을 다루기 위해 선대의 더 똑똑하고 특출한 선배들의 사례가 제시된 것이다.

5. 나가며

딸의 총명함을 과시적으로 드러내고 또 강조했던 아버지들은 어쩌면 그것이 부녀에게 부여된 규범과 범위를 침범할 수 있으며, 결국은 그러한 규범을 의문스럽게 만들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규범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규범의 틈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 글은 규범의 경계를 오가는 그 미묘한 긴장을 읽어내고, 사대부 남성들이 설정하고자 한 규범이 내포한 모순과 역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딸과 누이의 총명함은 '규범을 따르는 것'과 '규범 밖으로 나서는 것' 사이에서 유동하며 규범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을 허용하는 근거 자료로 제공되었다.

17세기~18세기에 유교적 규범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정되고 있었다.[56] 조선후기 사회에서 '부덕'은 여성의 삶을 규제하는 규범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고 실제로 작동했다. 그 과정에서 죽은 딸과 누이의

56) 이러한 경향은 호적대장 등 국가적 행정문서의 작성 방식에도 반영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지영, 앞의 책 참조.

총명함은 비범한 여성이 다다를 수 있는 허용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 제시되었다. 아버지들은 그녀들을 당대 사회가 설정한 어떤 '올바름'의 범주 속에 배치하고 그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그녀의 삶을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들은 그녀들의 총명함을 기술하면서 그러한 여성에 대해 진술하고, 그러한 여성들에 대한 특정한 견해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총명함을 규범적 차원에 배치하면서, 그녀들을 가르치고 어떤 위치에 배정하는 것을 통해 총명한 그녀들을 다루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규범은 고정된 전제조건이 아니라 느슨한 상태로 구성되는 과정 속에 있었다. 그 자체가 불안정한 것이며 역설을 품은 것이었다. 그 속에는 죽은 그녀들의 총명함을 드러내면서도 '여공'으로 수습하고, 규범에 맞게 제한하면서도 그녀들의 비범함을 자랑스러워한 흔적이 담겨 있다. 남성 사대부들과 그들이 딸들의 삶은 규범과 일탈의 중간 지대에 낀 상태에 있었다. 죽은 딸과 누이에 대한 제문은 그녀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잠재워야 하는 아버지의 '뒤섞인 혼란'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사대부들이 쓴 글은 유교적 규범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설정 중인 규범에 틈을 내는 모순을 담고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김수항, 「딸에게 주는 제문」.

———, 「딸의 묘를 이장하고 쓴 제문」.

———, 「딸의 행적」.

김재찬, 「누나의 묘지명」.

김창집, 「딸의 행장」.

김창협, 「누이를 위한 애사」.
———, 「오씨에게 시집간 딸의 묘지명」.
김창흡, 「둘째 며느리 박씨 부인에게 주는 제문」.
송시열, 「서녀 민씨 부인에게 주는 제문」.
송준길, 「딸의 무덤에 쓰는 글」.
송징은, 「큰 누님께 올리는 제문」.
오광운, 「어려서 죽은 누이동생의 행장」.
오도일, 「상씨에게 시집간 누이에게 올리는 제문」.
윤봉구, 「누이동생 숙부인 윤씨의 묘지」.
윤증, 「누이의 묘지」.
이의현, 「둘째딸 김씨의 아내 묘지」.
이재, 「홍씨 누님께 올리는 제문」.
이하곤, 「딸 봉혜 광지」.
이헌경, 「이씨에게 시집간 딸 제문」
정제두, 「누이 정부인의 유사」.
채제공, 「이씨에게 시집간 여동생 제문」.
홍세태, 「딸 이씨 부인에게 주는 제문」.
김경미 외 역,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1~4』, 보고사, 2006.
김경미·황수연 외 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 보고사, 2010.

2. 단행본
정지영, 『질서의 구축과 균열-조선후기 호적과 여성들』,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1-443쪽.

3. 논문
강성숙, 「기억을 통해 드러나는 18세기 사대부의 여성상 -서당(西堂) 이덕수(李德壽)의 어머니, 아내, 딸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38호, 겨레어문학회, 2007, 79-109쪽.

강혜선, 「조선후기 여성 묘주 묘지명의 문학성에 대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0호, 한국 한문학회, 2002, 7-36쪽.

———, 「한국문학과 일상적 삶 ; 조선후기 여성 대상 제문(祭文)과 묘지명(墓誌銘)에 나타난 일상성 연구」, 『국문학연구』 13호, 국문학회, 2005, 57-83쪽.

고연희, 「17세기 남성의 여성재현 : 김창협의 여성 애제문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한국문화』 32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3, 259-282쪽.

김경미, 「18세기 양반여성의 글쓰기의 층위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5-50쪽.

김현미, 「19세기 • 20세기 초 문인들의 제망녀문 속에 드러난 애도」, 『여성문학연구』 3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101-129쪽

류준경, 「여성 망자(亡者)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기록, 그 차이와 층위 -의유당의 < 숙부인이씨행록 >과 < 숙부인이씨유사 > 및 박윤원의 <숙부인연안이씨애사>를 검토함-」, 『국문학연구』 33호, 국문학회, 2016, 122-158쪽.

박무영,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연구』 32집, 한국한문학회, 2003, 317-352쪽.

이경하, 「동관(彤管)의 전통, 그 일상의 정치」, 『국문학연구』 15호, 2007, 79-96쪽.

이은영, 「조선 초기 제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1, 1-240쪽.

이지양, 「조선조 후기 사대부가 기록한 아내의 일생: 행장 26편으로 본 내조(內助)의 힘」, 『인간 • 환경 • 미래』 7권,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1, 31-57쪽.

황수연, 「17세기 '祭亡室文'과 '祭亡女文' 연구」, 『韓國漢文學硏究』 30호, 한국한문학회, 2002, 37-73쪽.

———, 「조선후기 제문 연구—여성 대상 제문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25호, 2006, 403-428쪽.

황윤정, 「가문 질서의 재생산으로서 여성 행장의 글쓰기 방식 연구 -김만중의<선비정경부인행장(先費貞敬夫人行狀)>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5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547-580쪽.

Abstract

Writings about the brilliance of Deceased Daughters and Sisters in the Late Joseon Period

: Commendation, Lamentation and Delimitation

Jung, Ji-Young

The writings by scholar-officials in the late Joseon period for their dead daughters and sisters present a paradox of praising brilliant daughters and setting the limits for such intelligence. These writings not only provide us with precious details of upper-class women's lives in the Joseon society, but they also reveal the complex nature of how the norms were created, revisited, and re-invented. The women whose lives were in the writings were highlighted both as the models of womanly virtues and as brilliant daughters of prominent families. The authors, on one hand, praise the intelligence of the deceased family members, and on the other hand confined such brilliance within the framework of virtues and women's work. They set limits for women with the normative vision of womanhood, and yet created a fissure for women to give rise to new possibilities.

Key words : funeral oration, womanly virtues, literacy, norms, threshold

■ 본 논문은 2017년 7월 13일에 접수되어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